

책임 방기 방문진, 해임 사유 분명해졌다



MBC '신뢰성·공정성' 지적

경영평가 보고서 폐기

MBC의 최고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포기했다. 어제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2016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고, 심지어 보고서 자체도 폐기됐다. 방문진의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 억지 트집을 잡아 세 차례나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더니, 이번엔 아예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통상 상반기에 처리돼 온 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을 방문진이 9월이 되도록 문제 삼는 이유는 바로 그 내용 때문이다. 보고서는 "MBC의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제재는 지상파 3사 중 건수와 감점 모두 가장 많았고,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사유에 따른 제재가 8건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00분토론>의 경우 일부 패널의 막말이나 편파적인 패널 선정이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동안 왜곡·편파 보도로 일관하다 추락한 MBC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것이다.

평가 대상이 된 2016년 보도·시사 책임자는 현 사

장인,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도 김장겸 사장이다. 이사들이 보고서 채택 불가의 근거로 든 것은 "MBC가 친정부 여당 보도를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한겨레에 칼럼을 썼다" 등 하나같이 억지 주장들뿐이다. 각종 평가지표가 한 목소리로 'MBC 추락'을 지목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은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친 채 '김장겸 감싸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김장겸 사장 출석안도 부결

방문진은 평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직후 상정된 '김장겸 사장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도 서둘러 부결시켰다. 전국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파업에 들어간 '비상 상황'에서 감독권 행사는 물론 최소한의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처사다. 방문진이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기능이 마비된 '식물' 이사회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해 1월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을 때도 '개인적인 발언'이라며 감췄고, 세월호 편파보도와 이에 따른 특조위 조사 불응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눈감았다. 지난 9년 MBC 몰락의 '총체적 공범'인 것이다. 'MBC 경영평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 10조에 명시된 방문진의 의무다. 방문진은 보고서를 폐기하며 스스로 감독기관임을 포기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MBC 파행의 '주범'인 김장겸 사장, 그리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방조했던 '공범' 이사진은 이제 그 직을 내려놔야 할 시점이다.

방문진은 '붕승아 학당' 인가 4시간 마라톤 회의 ... 촌극의 연속

어제 열린 방문진 이사회는 웃지 못 할 촌극의 연속이었다. 당초 파업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출석한 백종문 부사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파업 대책 내용이 공개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갑자기 회의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방문진 이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자 고영주 이사장은 "보고를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긴급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첫 번째 안건은 이렇게 처리됐다.

다음 안건은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 쟁점은 '극우인사의 막말',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외면' 등의 표현이었다. 구 여권 이사들은 표현이 과하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뜻밖에도 제동을 건 사람은 고영주 이사장이었다. "저자 승인 없이는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표현을 바꾸는 건 저자 승인이 없어 논의할 수 없으니, 보고서 채택 여부만 표결로 정하자"는 해괴한 결론을 낸 것이다. 구 여권 이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결과는 뻔했다. 4대 3으로 보고서는 폐기됐다. 지난 1년 동안 6천만 원을 들여 만든 '2016 경영평가 보고서'가 종잇조각이 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김장겸 사장 출석 문제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의 역할이 더욱 빛났다. "회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사장을 불러야 한다"는 구 야권 이사들과 "사장이 나오면 싸움만 된다"는 구 여권 이사들이 맞섰다. 팽팽한 대립 속에 이사들 사이에 고성이가 오갔다. 이를 지켜보던 고영주 이사장은 갑자기 "김사장 출석에 찬성하면 손을 들라"고 말했다. 아수라장속에서 이 말에 신경 쓴 이사는 아무도 없었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곧바로 "손을 든 사람이 없으므로 부결시키겠다"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방문진 이사회는 그렇게 끝났다.

유의선 이사 사의 MBC 정상화 물고 타지나?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의 한 이사는 "어제 유의선 이사가 사퇴 절차를 문의했다. 공식적인 사의 표명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유 이사는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추천 이사다. 이른바 '6:3'의 기울어진 구도로 김장겸 사장을 옹호해온 방문진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방문진은 여권 추천 이사 6명과 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유 이사의 사퇴로 공식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는 현 여권이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 구도가 6:3에서 5:4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영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가 한 명만 더 사퇴하면 김장겸 사장을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시대 출신 조합원들 '토론' 제안

앞서 지난 5일 이화여대 출신 MBC 조합원 17명은 이화여대 교수인 유 이사에게 메일을 보내 '토론'과 '대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저버린 책임과 의무에 대해 교수님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부끄럽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제자들의 메시지에 유 이사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학자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이 있다면 고영주 이사장 같은 극우 세력과 한몫음으로 취급을 당하는 것도 못마땅했을 것이다. 유 이사는 지난 달 23일 고영주 이사장과 함께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MBC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사퇴절차를 문의하는 유 이사는 매우 초조해 보였다"고 방문진 관계자는 전했다. 망가지는 MBC를 방치해온 방문진의 균열, 해체의 시작으로 보인다.

MBC 재건 투쟁...전국이 뭉쳤다!

우리는 승리한다. 5년 만의 총파업 열기로 전국이 뜨겁다.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들도 공영방송 MBC 재건을 외치며 뭉뚱 뭉쳤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MBC·KBS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공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MBC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는 전국 파업 투쟁 현장 곳곳에서도 확인됐다.

춘천지부는 이미 사장실을 점거한 채 송재우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대전지부 조합원들 역시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진숙 퇴진을 외치고 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투쟁에 나섭니다.”



지난 1일 전주 MBC 뉴스데스크의 오프닝 멘트다. 동시에 MBC 재건을 위한 전국 MBC의 투쟁을 알리는 선언문이기도 했다. 시민들도 응원에 나섰다. 지난 4일 열린 전주지부 파업 출정식에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손팻말이 등장했다. 유치원생 딸을 둔 한 주부는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엄마들끼리 뭉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찾아왔다”고 말했다.

어제 5·18 민주묘역을 찾아 함께 투쟁 의지를 다진 광주·목포·여수지부 조합원들은 프로야구 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겨 ‘김장겸 퇴진’을 외쳤다. 민주 명령들 앞에서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다짐했다.



경남지부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사무실 앞에서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도구로 악용하려 했던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강원영동에서, 대구에서, 원주에서, 전주에서, 청주에서, 충주에서.. ‘공정방송 쟁취, 김장겸과 언론부역자 퇴진’의 목소리는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조합원들을 ‘굶기는’ 이유

구내식당 임형욱 주방장



조합원들이 가득 모인 로비에 낮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짙은 눈썹에 딱 붙여진 어깨. 대형 주걱을 손에 들고 나타난 사나이. 86년 입사해 31년 외길인생. 여의도 사옥 시작과 함께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구내식당의 임형욱 주방장님이다. 신선한 재료에 화려한 솜씨를 더해 만드는 식사는 매일 1500인분. 새벽부터 직접 재료를 검수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수 십 년째 식중독 사고 ‘제로’라는 놀라운 기록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BC ‘건강 지킴이’ 구내식당은 임 주방장을 포함해 영양사*조리원 등 12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MBC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투쟁은 밥심’이라는데, 임 주방장은 소중한 조합원들을 ‘굶겨가며’ 파업에 동참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잠시의 배고픔을 참고, 영원히 시들지 않기 위해’. 처음엔 어색하게 입을 뗀 임 주방장은 명언 제조기였다. “도둑맞은 주인보다 짓지 않는 개가 더 욕을 먹는다”며 바로 지금 파업을 하고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짓지 않아 욕을 먹는 개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 주방장은 약속했다. 이번 투쟁이 승리하는 즉시, 직원들에게 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질 호도하는 회사 특보

사측이 어제(7일)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특보를 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폄하하고, 제기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선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이다. 극우 여론이라도 붙잡으려는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유배지 부당전보 이유부터 밝혀야

사측은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에게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고요?”라며 뜬금없이 신사업센터 근무자들의 “연봉”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액 연봉자들에게 청소와 주차장 관리를 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유치하다. 최소한의 논리도 없는 억지인데다, 연봉의 많고 적음과 특정 직무를 연관시키는 고약한 직업적 편견까지 여과 없이 담겼다.

본질은 방송 노동자인 PD와 기자, 아나운서들이 본업인 방송에서 부당하게 밀려나 다른 일로 내몰렸다는 점이다. 연봉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해야 했는지, 본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는 게 먼저다. 영화 “공범자들”에 공개된 이우환 PD의 일화는 상암 스케이트장에서 벌어진 슬프고 어처구니없는 사연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는 점도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고 손해가 파업 탓? 법부터 공부하라

사측은 또,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에 어처구니없이 날린 광고만 수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4일 월요일 오후부터 만 하루 동안 지속된 광고 불방 사태의 책임을 노조에 돌린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를 끊임없이 일삼는 자들답게 파업이 무엇인지 이해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다. 조합원들이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불평도 늘어놓았다. 하지만, 송출준비실 조합원 7명 가운데 인수인계 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단 한명 뿐이었다. 하루 이틀 만에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업무여서 해당 조합원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더 이상 요청은 없었다. 일부 매뉴얼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측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측에 되묻고 싶다. 파업 확대 투표가 공고된 8월 중순부터 실제 파업 돌입까지 2주 넘는 시간 동안 방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비를 했는가? 노조가 정파를 노린다는 근거 없는 비방이 전부는 아닌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방송 사고들은 언급하기조차 부끄럽다. 광고 수익 손실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동료 언론을 ‘지라시’라고 부르는 무례한 언사도 멈추길 바란다. 지금 ‘지라시’ 소리를 들어 마땅한 건 오히려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하고 있는 ‘김장겸의 MBC’다.